

# 한국어 수사구의 언어유형론적 고찰\*

정해권

(한국외대)

**Jeong, Haegwon. (2017). A Linguistic Typological Study on the Korean Numeral Phrase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5(1), 183-202.** In a linguistic typological perspective, Korean has fluently developed classifiers which represent limits of abstracting the objects and an early stage of categorizing them. Therefore, it appears that the numeral phrases with repeaters or classifiers are older than the forms without a classifier. Old Korean poems first represent the number and noun interpreted as a form of the number and repeater construction. On the other hand, the basic number of Korean did not appear at the same time but developed sequentially. Number five and others in many languages have the etymological association with 'hands', but Korean numbers are probably not. The Korean number system uses the reconstructed number ten un as a base. In addition, the variation of number twenty and forty may be traces of the vigesimal numeral system.

**주제어(Key Words):** 언어유형론(linguistic typology), 수(number), 수사(number word), 수열(number sequence), 분류사(classifier), 수사구(numeral phrase), 기본수(number base)

## 1. 머리말

수에 대한 개념은 구체적인 사물을 추상화하고 경계를 분명히 하는 범주화 능력을 통해 얻어지는 사고방식과 관련되는데,<sup>1)</sup> 어떤 대상을 셀 수 있다는 것은 인지적으로 대상을 구분

---

\* 이 연구는 2016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이 연구는 또한 2017년 2월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언어유형론학회 제6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다양한 조언을 해주신 홍재성, 이정민, 임근석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1) 수는 이를 가리키는 말(수사)이나 기호(숫자)의 형태로 나타나지만(Menninger, 1992, p. ii), 경우에 따라 수사와 숫자를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한편 수는 수량 표현의 하위 부류이지만, '여러, 몇' 등의 양화사(quantifier)는 본고의 논의에서 제외한다.

하고 대상과 수를 대응시켜 배정하는 매우 추상적인 과정이다(Menninger, 1992, p. 2). 따라서 수가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범주 가운데 하나라 하더라도 수를 표현하는 것이 단순하고 쉬운 것만은 아니다. 수에 대한 단어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언어가 있다는 사실(Haarmann, 2008, p. 34)은 언어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아직 수사를 사용하지 못하던 단계가 있었음을 시사한다.<sup>2)</sup> 그리고 아동의 인지 발달에서 셈에 대한 능력이 비교적 늦게 발달하는 데에서도 수에 대한 개념화가 쉽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3)</sup> 이와 같은 예들은 수를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잘 드러낸다.

한편 인간의 가장 오래된 기록의 흔적에서 규칙적으로 나타난 선들을 통해 수와 관련된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데(Haarmann, 2008, p. 11),<sup>4)</sup> 수는 이 같은 일대일 대응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측된다(Ifrah *et al.*, 2000, p. 10). 그런데 아직 대상과 수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를 하나의 단위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1)의 ‘두름’과 같은 단어는 대상에서 일반적인 개념을 분리하지 못하고 대상의 의미가 수사에 흔적을 남긴 것으로 볼 수 있다.<sup>5)</sup>

- (1) a. 굴비 **두름**을 엮다.  
 b. 조기 따위의 물고기를 짚으로 한 줄에 열 마리씩 두 줄로 엮은 것
- (2) a.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레, 여드레, 아흐레, 열흘, ...  
 b. ひとり(1명), ふたり(2명), みたり(3명), よったり(4명), ...

특별한 단어 이외에도 (2)와 같이 수사와 대상이 결합된 형태로 쓰이는 단어들도 있지만, 이는 엄밀하게 분석하면 수사가 분리될 수 있으므로 (1a)의 융합된 형태와는 차이가 있다. 즉 (2a)의 ‘하루’는 ‘하르 < 흐르 < \*흐랄로 재구되고 ‘이틀, 사흘, 나흘’ 등에서도 대상인 ‘날(日)’을 뜻하는 ‘을’이 발견되므로 이는 분류사(classifier)에 의한 수사 구성으로 볼 수 있다.<sup>6)</sup>

- 
- 2) 수사는 일반적으로 사물을 세는 기수사(cardinals)와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사(ordinals)로 구분되나 본고에서는 주로 기수사만을 다루며, 넓은 의미에서 수사가 수관형사를 포함한다는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한다.
- 3) 아이들은 보통 3~4세 이후에 완전하게 수를 셀 수 있다(Ifrah *et al.*, 2000, p. 5).
- 4) 75,000년 전 남아프리카 Blombos 동굴의 돌이나 22,000년 전 서아프리카 Ishango 지역의 뼈 등에 규칙적인 간격으로 표시된 선이 수에 대한 개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Henshilwood *et al.*, 2002; de Heinzelin, 1962).
- 5) ‘두름’과 같은 단어를 묶음 단위명사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 부류에는 ‘괘, 째, 접, 축, 동, 다발, 사리, 묶음, 툇, 축’ 등이 있다(민현식, 1998, p. 192).
- 6) 한국어는 분류사가 발달한 언어에 속하는데, 단위성 의존명사가 분류사에 해당한다(채완, 1983, p. 19., 한편 언어유형론에서 분류사는 명사 부류(성), 명사 분류사, 수 분류사, 소유 분류사, 관계 분류사, 동사 분류사, 처소 분류사, 직시 분류사 등으로 구분되고(Aikhenvald, 2000, pp. 2-3), 수사 다음에 사용되는 분류사는 수 분류사(numeral classifier)에 해당하는데, 수 부류(number class)라고도 불린다(Menninger, 1992, p. 24). 본고는 수 분류사를 분류사로 약칭하며, 수사와 분류사 구성을 수사구(numeral phrase)라

(2b)의 일본어에서도 비슷한 쓰임을 볼 수 있다.<sup>7)</sup>

그런데 분류사가 많을수록 그 언어의 수 체계는 대상과 더 강하게 결부되어 있으므로 더 원시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Menninger, 1992, pp. 427-428), 대상의 속성을 내포하는 분류사는 아직 추상화가 덜 진행되어 수와 대상을 완전히 구분하는 단계까지 발달하지 못한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지적 관점뿐 아니라 언어유형론에서도 분류사가 나타나는 구성이 공시적, 통시적으로 더 기본적이라고 본다(Greenberg, 1975, p. 30).

한편 한국어 수사구가 통시적으로 분류사가 없는 구문에 분류사가 덧붙여 발달했다고 보는 입장이 있는데(채완, 1982, p. 168; 정제환, 1998, pp. 217-218), 이는 매우 특이한 발달 양상을 보이는 것이므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설명이다. 그리고 한국어 수사는 고유어 수사와 한자어 수사구로 구성되어 이중적인 수사 체계를 갖는데, 이 또한 언어유형론에서 매우 두드러진 특징으로 언급되고 있다(Haarmann, 2008, p. 54).

표 1. 인도-유럽어족 일부의 기본수사 대응(Lehmann, 2013, p. 12)

	Sanskrit어	그리스어	라틴어	영어
2	<i>dva</i>	<i>duo</i>	<i>duo</i>	<i>two</i>
3	<i>tráyas</i>	<i>treīs</i>	<i>trēs</i>	<i>three</i>
6	<i>sat</i>	<i>heks</i>	<i>sex</i>	<i>six</i>
7	<i>saptá</i>	<i>heptá</i>	<i>septem</i>	<i>seven</i>
10	<i>dása</i>	<i>déka</i>	<i>decem</i>	<i>ten</i>

그런데 한국어의 고유어 수사는 어원이나 계통을 알기 어렵지만, 유럽의 언어들에서 수사는 <표 1>과 같이 분명한 유사성을 나타내고 고대 인도의 Sanskrit어와의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하나의 어족으로 밝혀졌다(Jones, 1824, pp. 28-29). 이처럼 수사 체계에 대한 이해는 언어 자체의 기원과도 관련된다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한국어의 고유어 수사에는 불규칙적인 이형태가 많고 그 구성이 자의적인 것처럼 보이므로 이를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불규칙적으로 보이는 수사 체계도 범언어적인 규칙성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Heine, 1997, p. 18), 한국어 수사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언어의 수사 체계가 인간의 인지적 과정을 반영하며 보편적인 경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즉 다수의 언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유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계통적으로 관련된 언어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긴밀한 유사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인지적, 유형적 관점에서 한국어 수사 체계를 검토함으로써 한국어 수사가 갖는 고유한 특성과 보편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청한다.

7) (2b)에서도 ‘ひと-, ふた-, み-, よっ-’ 등 일본어 수사를 구분할 수 있다.

## 2. 한국어 수사구의 발달

### 2.1. 기존 가설: 분류사 첨가설

수사의 발달에서 대상을 범주화하고 이에 대한 추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는 대상의 속성을 나타내는 분류사가 사용되는데, (3a)와 같이 한국어는 다양한 분류사가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3b)처럼 중국어와 일본어에도 여러 가지의 분류사가 쓰이는데, 지역적으로 남아시아와 남태평양의 언어들에서 분류사가 많이 나타난다(Aikenvald, 2000, p. 3). 한편 한국어는 대상, 수사, 분류사가 (4)와 같이 다양한 조합으로 표시되어 수사구를 이루는데, 그동안 한국어 수사구의 각 유형이 갖는 통사적, 의미적 기능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수량을 표시하는 분류사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이익섭, 1973, p. 56).

- (3) a. 아이 한 명, 장난감 두 개, 개 세 마리, 나무 네 그루, ...  
 b. 一头牛, 两张画, 三个苹果, ... ; 铅笔一本, フィルム二卷, 辞典三册, .....

#### (4) 한국어의 수사구

- |            |                              |
|------------|------------------------------|
| a. 사람 둘    | [명사-수사]                      |
| b. 사람 두 명  | [명사-(수사-분류사)]                |
| c. 두 사람    | [수사-명사]                      |
| d. 두 명의 사람 | [(수사-분류사 <sub>속격</sub> )-명사] |

분류사는 기원적으로 명사가 그대로 쓰이는 경우도 많고, 대부분의 보통명사가 문맥에 따라 수량 단위로 쓰일 수도 있으므로(정제한, 1998, p. 202),<sup>8)</sup> 분류사가 ‘수사-명사’ 구성의 특별한 용법에서 유래했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즉 통시적 사례를 통해 ‘수사-명사’ 구성이 분류사가 없던 단계의 오래된 형태이고 나중에 분류사가 첨가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고 보는 것이다(채완, 1982, pp. 161, 168).

한국어 수사구의 발달에서 분류사가 첨가되었다는 가설은 두 가지 근거를 통해 제안되는데, 먼저 고대 한국어의 일면을 볼 수 있는 (5)의 향가에서 분류사가 사용된 구문이 나타나지 않고 수사가 쓰인 6군데가 모두 ‘수사-명사’ 구성이었다는 데서 근거를 얻을 수 있다(채완, 1982, p. 168).<sup>9)</sup>

8) 명사가 분류사로 쓰이는 것을 반복소(repeater)라 하는데 모든 분류사 언어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이며(Aikenvald, 2000, p. 103), (4c)의 ‘두 사람’에서 ‘사람’은 명사와 분류사의 속성을 모두 가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9) 하지만 (5)의 ‘두볼 손바름’이나 ‘흐든 가지’도 ‘수사-반복소’나 ‘수사-분류사’의 구성으로 볼 수도 있는데,

- (5) a. **두** **볼** **손바닥** 모도라 (二尸掌音毛乎支內良) (삼국유사 권3)  
 b. **하** **든** **가지**라 나고 (一等隱枝良出古) (삼국유사 권5)
- (6) a. **숨바** **을** **날** **굽**과 이븐 나모와 ... 네도 쏘 잇더신가 (용비어천가 89장)  
 b. **大箭** **하** **나대** 突厥이 놀라스븐니 (용비어천가 47장)  
 c. **열** **銀鏡**을 노흐시니이다 (용비어천가 46장)  
 d. **네** **가지** **受** **苦**를 여희여 (석보상절 6:4a)

또한 1440년대 자료인 (6)의 『용비어천가』와 『석보상절』에는 수사구의 다양한 구성 유형이 나타났지만, 두 문헌에서 (6c)와 같은 구성은 97(=34+63)번이었고, (6b)와 같은 구성은 단지 3(=2+1)번만 나타났다. 그런데 1510년대 문헌인 『번역노걸대』에서는 분류사가 없는 구성과 있는 구성이 각각 75번과 80번으로 분포의 변화를 보인다. 즉 『용비어천가』와 『번역노걸대』를 단순 비교할 때, ‘수사-명사’ 구성은 92%에서 33%로 줄어든 반면, ‘명사-(수사-분류사)’ 구성은 5%에서 35%로 급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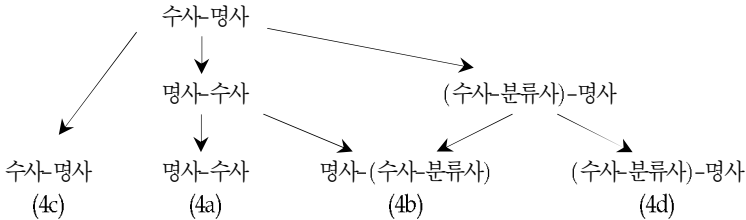


그림 1. 한국어 수사구의 통시적 변화(채완, 1982, p. 169)

따라서 시기적으로 앞선 시대에 많이 사용된 ‘수사-명사’ 구성이 한국어 수사구의 기원적 형태이며(채완, 1982, p. 169), ‘수사-명사’ 구성에 분류사가 첨가되어 ‘(수사-분류사)-명사’ 구성이 되었거나 어순 변화에 의해 ‘명사-수사’ 구성이 된 뒤 분류사 첨가에 의해 ‘명사-(수사-분류사)’ 구성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의 과정은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통시적으로 보이는 사례들을 바탕으로 논의한 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먼저 자료 해석 방법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지적 설명이나 언어유형론 논의에서 나타나는 바와 차이가 있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다.

현대 한국어에서도 ‘두 손바닥’이나 ‘한 가지’가 분류사 구성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 3.2. 한국어 수사구의 발달에 대한 대안적 설명

고대 및 중세 한국어 자료에 대한 해석에 문제로 먼저 비교 대상이 되는 문헌의 장르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시가인 향가나 『용비어천가』와 대화체의 『번역노걸대』는 문체(style)상 차이가 있으므로 여기에 사용된 표현에서도 필연적으로 분포상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시가는 운율에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생략하거나 문장 구조를 조정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런 문체에서 명사와 관련된 속성을 표시하는 분류사는 다소 수의적이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아닐 수 있다. 따라서 향가와 같은 시가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이 분류사가 쓰이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즉 자료의 부재를 존재의 부재로 보기는 어렵다.

분류사 언어에서 시간이나 거리 등을 지칭하는 명사에 대한 분류사가 없을 경우에 (7)의 예와 같이 '수사-명사' 구성이 아닌 '수사-분류사' 구성이 되는데, 이는 분류사가 생략된 것이 아니라 이들 명사가 측정 단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Greenberg, 1975, p. 30). 따라서 한국어에서 (2'a')도 '수사-분류사' 구성으로 분석되며, 마찬가지로 향가에 나타난 예도 (5')과 같이 '수사-반복소(명사) 또는 '수사-분류사'로 분석할 수 있다.

- (7) a. 두 시간    b. 이 킬로미터  
c. 세 그릇     d. 네 바구니

- (2') a'. \*홀-을, \*일-을, \*상-을, \*냥-을, \*닷-에, \*옛-에, \*일-에, \*여들-에, \*아홀-에,  
\*엿-을, ...

- (5') a'. 두 손바닥                                        b'. 한 가지

또한 (6)의 예문들과 같이 동일한 시기에 다양한 수사구가 모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공시적 자료의 빈도가 반드시 어느 유형이 먼저 나타났다는 것을 보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대 한국어에서 과거를 나타내는 데 쓰이는 '-었-'과 '-더-'의 공시적 빈도만으로 통시적 발달 순서를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더 오래된 형태인 '-더-'가 현재에는 덜 사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빈도의 차이는 우선적으로 각 유형별 용법의 차이로 해석된다.

이뿐 아니라 (8a)의 예문과 같이 『번역노걸대』는 14세기 고려 상인이 교역 활동을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조미희, 2015, p. 130). 즉 시기상 『용비어천가』보다 앞서는 것이 후대에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sup>10)</sup>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역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8b)와 같

10) 비록 후대에 기록될 당시의 언어로 표현될 가능성도 있으나 '고려'라는 표현은 100년 전의 국명이므로 이는 충분히 언어 사용의 보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 분류사가 나타나는 구성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17세기의 『박통사언해』나 『노걸대언해』는 같은 시기의 다른 문헌에 비해 분류사가 많이 나타난다(고명균, 2007, p. 104). 게다가 이 같은 구성이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下권의 67~70면에 전체 80번 중 54번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이런 빈도의 변화가 통시적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채완, 1982, p. 163).

- (8) a. 내 高麗 王京으로서부터 오라. (번역노걸대 上 1a)  
 b. 큰 마늘 일획 째 (번역노걸대 下 67b)

또한 『번역노걸대』에서 사람을 나타내는 수사구만 살펴보면, ‘수사-명사’ 구성이 24번(35%) 나타나고 ‘수사-분류사’ 구성은 오직 2번(3%)밖에 나타나지 않는데(조미희, 2015, p. 159), 이는 『용비어천가』에 나타난 빈도와 매우 유사한 경향이다. 따라서 시가나 ‘노걸대’류의 회화체 문헌에 나타난 한국어 수사구 자료는 각 유형들이 사용되는 빈도나 분포를 살펴보는 데 유용할 수 있으나 기원적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분류사가 있는 구성이 구조적으로 더 복잡하더라도 인지적 측면에서 먼저 나타나는 구성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Menninger, 1992, pp. 427-428).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사는 대상을 종류에 따라 구분하고 추상적으로 파악하여 셀 수 있는 인지적 능력과 관련되는데, 분류사는 대상에 대한 추상화와 범주화 과정에서 대상의 속성을 함께 표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물에 속하는 대상과 식물에 속하는 대상에 대한 추상화 과정에서 상이한 범주로 파악된다면 (9a, b)와 같이 각 대상을 별도의 분류사로 표시하겠지만, 두 대상을 추상적인 하나의 자질로 파악하고 굳이 별도의 표시가 필요하지 않다면 (9c, d)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분류사 없는 구성은 분류사가 사용된 구성보다 인지적으로 복잡한 추상적 처리 과정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즉 분류사가 사용된 구성은 대상에 대한 추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를 나타내고, 분류사가 없는 구성은 대상의 속성을 수사에 표시하지 않는 추상화 단계를 표상한다.

- (9) a. 말 한 마리                      b. 나무 한 그루  
 c. one horse                         d. one tree

마지막으로 분류사가 없는 구성이 우선한다는 가설은 다수의 언어에서 발견되는 통시적 변화나 이에 대한 설명과 대립된다. 즉 많은 경우에 분류사가 있는 구성에서 분류사가 없는 구성으로 발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중국어 갑골문에서 ‘수사-명사’나 ‘명사-수사’ 구성이 다수였으나 분류사의 기반이 되는 반복소(repeater)가 나타난 ‘명사-수사-명사’ 형태

의 예가 있었고 이는 ‘명사-수사-분류사’ 형식으로 발달하였다(박정구, 2012, pp. 396-398). 중국어 수사구가 보이는 통시적 변화는 <표 2>와 같이 먼저 이른 시기에 ‘명사-(수사-분류사)’ 어순이 나타났고, 다음 단계에서 범용 분류사가 확대되어 ‘명사-수사’로 쓰였으며, 이어서 일반적인 어순인 ‘수사-명사’를 거친 다음 ‘(수사-분류사)-명사’ 구성이 되었다고 보기도 한다(Greenberg, 1975, pp. 31-33). 이와 같이 반복소는 통시적 발달에서 전형적인 분류사를 생성하는 기본이 되므로(박정구, 2012, p. 397; Aikhenvald 2000, pp. 103-104), 반복소에 의한 ‘명사-수사-명사’ 구성이 기원형으로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11)</sup>

표 2. 중국어 수사구의 어순 변화(Greenberg, 1975, pp. 31-33; 채완, 1982, p. 158)

시 기	수사구의 어순	특 징
기원전 15~12세기	명사-수사-명사 명사-(수사-분류사)	반복소
기원전 11~10세기	명사-수사 수사-명사	가장 보편적
기원전 3~4세기	수사-명사	
기원후 3세기~	(수사-분류사)-명사	7세기에 의무적 9세기에 어순 변화 완결

대부분의 언어에서 수사구를 구성할 때 ‘수사-분류사’가 먼저 구를 형성하고 다음에 명사와 결합하여 ‘명사-(수사-분류사)’나 ‘(수사-분류사)-명사’와 같은 구를 형성한다(Greenberg, 1975, p. 29). 이는 분류사가 명사에서 유래한 경우가 많더라도 명사와 같은 부류로 묶이는 것이 아니라 수사가 나타내는 개념적 범주에 묶인다는 것을 암시한다. 만약에 분류사가 명사의 확장이라면 ‘명사-수사’ 구성에서 ‘분류사-명사-수사’나 ‘명사-분류사-수사’와 같은 구성이 나타나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므로 이런 가설이 부적절함을 보여준다. 또한 분류사가 첨가된 것이라면 수사가 선행하는 ‘수사-명사’ 구성이 ‘명사-수사’ 구성보다 선호되는 것처럼 수사가 선행하는 ‘수사-분류사-명사’ 구성이 ‘명사-수사-분류사’ 구성보다 더 선호되어야겠지만 그런 빈도의 대응이 발견되지 않는다. 게다가 ‘수사-명사’ 구성이 기원형이라는 가설은 명사의 속성을 나타내는 분류사가 왜 명사와 구를 형성하지 않고 수사와 구를 형성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11) 한편 임신서기석의 “二人并齋記(두 사람이 함께 맹세하여 기록한다.)”라는 표현에서도 ‘수사-명사’ 구성이 나타난다고 지적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어 갑골문에서도 ‘人’은 ‘수사-人’의 구성으로만 나타났으며 명사로서의 지시성을 상실하고 분류사로 기능한다고 보고 있다(박정구, 2012, p. 397). 또한 현대 한국어에서도 ‘우리 두 사람과 같이 ‘사람’이 분류사로 쓰이므로 ‘수사-명사’ 구성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수사-분류사’의 성격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고대 중국어에 ‘수사-분류사-之-명사’와 같은 속격 구성이 문법화가 덜 진행된 분류사에 사용되었고, 한국어 ‘수사-분류사-의-명사’ 구성도 중국어의 영향으로 볼 여지도 있다(박정구, 2012, p. 396, 404). 따라서 한국어에서 ‘(수사-분류사)-명사’ 구성이 ‘명사-(수사-분류사)’ 구성으로 발달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는 분류사 다음에 속격 ‘의’를 필요로 하는 제약이 문법적으로 발달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이다.<sup>12)</sup>

그리고 중세 한국어에서 (10)과 같이 ‘(수사-분류사)-동사’과 같은 구성이 발견되는데(고명균, 2007, pp. 111-112), 수사구가 동사와 결합하는 경우에 ‘세 번 때리다’와 같은 구성만 가능하고 ‘\*{셋/세} 때리다’와 같은 구성은 불가능하다. 즉 동사와 결합한 구성은 명사와 결합하는 구성과 달리 분류사가 생략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도 역시 ‘수사-분류사’의 구성이 더 원천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중국어에서도 ‘打一下(때리다-한-번)’와 같이 더 오래된 형태인 ‘동사-수사-분류사’ 구성이 동량사로 사용되고 있다.

- (10) a. 세 번 마즈를 면하라 하여 쓰고 (노걸대언해上 4a)  
 b. 흥 디워 쉬요를 잇긔하야든 기드려 머기라 가자 (노걸대언해上 28a)

한편 『번역노걸대』에서 ‘명사-수사’ 구성이 10번(4%)으로 적게 사용된 점은 ‘수사-명사’ → ‘명사-수사’ → ‘명사-(수사-분류사)’로의 발달을 설명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즉 ‘수사-명사’ 구성이나 ‘명사-(수사-분류사)’ 구성은 활발하게 사용되는데 그 중간 단계를 연결하는 ‘명사-수사’ 구성이 적게 사용된다는 점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그리고 분류사를 수식하는 수관형사는 형태적으로 15세기 이후에 거의 차이가 없으나(구본관, 2001, p. 281), 수사는 ‘하나층→하나처럼 어느 정도 변화를 겪었다는 측면에서 수관형사가 더 안정적인 형태이므로 ‘명사-수사’ → ‘명사-(수사-분류사)’로의 발달이 어색함을 뒷받침한다.<sup>13)</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는 ‘수사-명사’ 구성에서 ‘수사-분류사-명사’를 거쳐 ‘명사-수사-분류사’로 발달하였거나 ‘명사-수사’를 거쳐 ‘명사-수사-분류사’로 발달했을 가능성(채완, 1982, p. 169)은 연결고리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수사구에서 ‘수사-명사’ 구성이 기원적인 형태라는 가설은 재고되어야 하며, 대신에 <그림 2>와 같이 한국어에도 기원적으로 반복소에 의한 ‘명사-수사-명사’ 구성이 존재했을 수 있으며 여기에서 ‘명사-

12) 다만 15세기 중세 한국어에서 “열회 만스를 하늘히 달에시니(용비어천가 19장)나 “닐흐의 모미 맞거늘(용비어천가 40장)”과 같이 ‘수사-명사’ 구성에서도 속격 ‘의’를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수사-분류사)-명사’ 구성과 ‘수사-명사’ 구성의 관련성을 상정할 수도 있겠으나, 이와는 별도로 ‘열층’이나 ‘닐흔’ 등이 수관형사가 발달하지 않은 큰 수이므로 명사형이 형용사처럼 쓰이는 과정에서 ‘의’가 첨가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13) 중세 한국어의 수사도 현대 한국어와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하나층’의 ‘층’이 탈락하거나 ‘세층’의 ‘층’은 ‘스’으로 변하는 특이한 양상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수관형사보다 많은 형태 변화를 겪었다.

수사-분류사 구성과 '∅-수사-명사' 구성이 발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현대에도 널리 쓰이는 '명사-(수사-분류사)' 구성이 기원적인 형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현대 한국어에서도 '수사-명사' 구성과 '명사-(수사-분류사)' 구성이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것을 설명해 준다. 또한 '명사-수사-분류사' 구성에서 범용 분류사가 확대되면서 분류사가 생략된 '명사-수사' 구성이 사용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sup>14)</sup> '수사-분류사-명사' 구성의 쓰임이 제한적이고 속격 '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원인도 유추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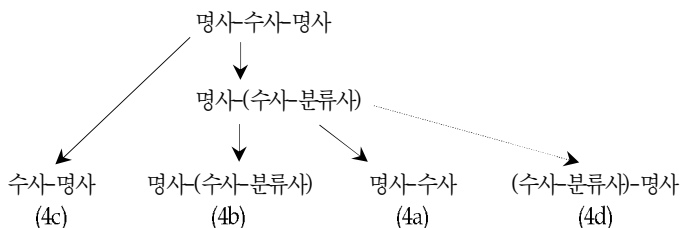


그림 2. 한국어 수사구의 통시적 변화에 대한 새로운 제안

### 3. 수사열의 발달

#### 3.1. 낮은 수의 수사열과 그 어원

언어마다 고유한 방식으로 수사를 발달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언어들 사이에 유사한 방식이 나타나는데, 수사와 이에 부가적인 분류사가 어느 정도 규칙성을 보일 뿐만 아니라 수사열(number sequence)도 수를 개념화하는 과정에서 인지적 보편성을 나타낼 수 있다.<sup>15)</sup> 비록 수사가 발달하지 않은 언어들도 있으나 이는 매우 특별한 경우에 해당할 뿐이며, 수에 대한 개념이 발달하면서 매우 이른 시기에 언어 형태(수사)로 표현되기 시작하였다(Ifrah *et al.*, 2000, p. xviii). 하지만 한 언어의 수사열이 모두 동시에 출현한 것은 아니다. 1의 수사가 수사 발달에서 가장 기본이 되겠지만 추상적인 수로서의 1이 출발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첫 수사로서의 1은 대상과 구분된 추상적인 수사가 아니었으며, 이보다 큰 수가 정립된 이후에 거꾸로 내려와 추상적인 수사로 발달한 것이다(박교식, 2008, p. 104).<sup>16)</sup>

14) 한국어는 일본어에 비해 '개'와 같은 범용 분류사의 사용이 확대되며 다른 분류사를 대신하고 있다.

15) 수사열(number sequence)은 수열(numeral sequence)이라 칭할 수도 있는데, 무한대로 확장되는 수의 순차적인 배열을 말한다.

16) 16세기까지 유럽에서는 1은 수가 아니라고 보았는데, 소수(prime number)에 대한 정의에서도 1은 예외로 한다(Menninger, 1992, p. 16).

제한된(restricted) 수사만을 갖는 언어에서는 기본수(number base)가 2 또는 3으로 제한되는데(Haarmann, 2008, p. 37; Comrie, 2005, p. 530),<sup>17)</sup> 이는 고립된 사회에서 필요에 따라 수사가 완전하게 발달하지 않은 상태를 보여 준다. 예를 들어 Amazon 우림 지역의 Pirahã어는 1과 2를 세고, 2보다 큰 수는 모두 *aibaagi*(‘여럿’)으로 표현하며, Botocudo어는 오로지 1의 수사와 또 다른 ‘짝’(2)만 존재한다(Haarmann, 2008, p. 36). Aranda어는 (11a)와 같이 수사 1과 2만 있으며 3과 4는 (11b)와 같이 수사 1과 2의 결합으로 표시하는데, 그 이상은 ‘많이’ 또는 ‘여럿’으로 표시된다(Ifrac *et al.*, 2000, p. 5).

원시 인도-유럽어에서 2의 수사 *\*duyo*(‘둘’)는 영어 *thou*(‘너’)나 독일어의 *du*(‘너’)와 관련되는데, 원시적 이분법에서 ‘둘’은 다른 인간을 의미한다(Menninger, 1992, p. 9). 한국어 ‘둘’의 어원을 복수접미사 ‘-들’과 관련짓기도 하는데(Aston, 1879, p. 359), 이와 유사한 일본어 ‘たち(達, *tachi*)’는 주로 사람의 복수형에만 표시된다.<sup>18)</sup> 이처럼 인류가 2의 수사를 만들었을 때, 비로소 1의 수사와 대립을 이루는 추상적인 수사 체계를 수립할 수 있었으며, 이런 수사 체계는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Menninger, 1992, p. 9).<sup>19)</sup>

중세 한국어에서 2의 수사로 ‘둘ㅎ’과 함께 쓰인 ‘벽-’의 형태도 (12a, b)와 같이 확인할 수 있는데, 현대 한국어에서도 ‘으뜸(〈웃뜸〉)’과 ‘버금(〈버금(벽+음)〉)’의 대응이 계속 쓰이고 있다. 이 중 ‘벽-(*pək*)’은 *\*pək* > *\*hek* > *ek*로 재구되어 (13)에 나타난 투르크계 언어들의 *ek*-(2)와 비교되기도 한다(Ramstedt, 1952, p. 63). 한국어의 고유어 수사로 ‘흔:두’ 이외에 ‘웃:벽-’과 같은 대응이 사용된 것은 1과 2의 수사와 3이상의 수사 사이에 간격이 있음을 시사한다.

- (11) a. 1: *ninta*, 2: *tara*  
 b. 3: *tara-mi-ninta*(‘둘과 하나’), 4: *tara-ma-tara*(‘둘과 둘’)

- (12) a. **벽** 貳 (훈몽자회 下 14)  
 b. 顏色에 나토디 아니호미 **벽**그니라. (내훈 1)

- (13) 터키어 *iki*(2), Uigur어 *eki*(2), Shor어 *iygi*(2), Tofa어 *iʔi*(2)

일반적으로 수사 체계가 5미만인 언어에서 가장 큰 수는 ‘많이’와 같이 대략적 수를 나타내는 양화사에서 발달하였다(Stampe, 1976, p. 597). 수사 3은 ‘많은 것, 알 수 없는 것, ~을 넘어서는 것’을 뜻하는 경우가 많다(Menninger, 1992, p. 12). 한국어의 경상 방언에서 ‘셋다(또는 썸다)’가 ‘ 많다’는 의미로 사용되므로 3의 수사 ‘셋’을 ‘셋-’과 관련지어 설명하기

17) 기본수는 셈이 다시 시작되는 기점이 되는 수를 가리킨다(Heine, 1997, p. 21).

18) 중국어의 복수접미사 ‘们(men)’도 사람에만 표시될 수 있다.

19) 많은 언어에서 단수와 복수 이외에 존재하는 쌍수형이 이에 대한 흔적이다.

도 하지만(신용태, 1988, p. 59), ‘썰다’가 ‘쌓이다’의 준말이고 ‘썰다’가 ‘쌓일 만큼 많다’를 뜻하므로 수사 ‘셋’과 ‘썰-/셋-’을 직접적으로 연결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3의 수사는 ‘\*살’(조규태, 2006, p. 99), \**sayd*(이승재, 2011, p. 42) 등에서 ‘\*사-’로 재구되는데, (14a)의 ‘사흘’에서 ‘사층-’가 3의 수사와 관련되고 ‘쌓(다)<상(다)’도 중세 한국어에서 (14b)와 같이 ‘사층-’으로 나타나므로 형태적 유사성이 나타난다. 또한 ‘사·층-을’과 ‘사·층-엿’에서 성조도 [평성-거성]으로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sup>20)</sup> 한국어에서 3의 수사 ‘셋’ <세층>은 어원을 알기 어렵지만 형태적으로 ‘쌓다’와 관련되고 ‘많다’는 의미와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다수의 언어들에서 3의 수사가 ‘많다’ 또는 ‘여럿’을 뜻하는 경향과 일치한다.

- (14) a. 사흘 바물 즈조 그딴를 꾸메 보니 (두시언해 11:52)  
 b. 西天ㄷ字엿 經이 노피 사헷거든 (월인석보 서:23b)
- (15) a. 3 : 세층, 셋, 세, 서이, 석, 사흘, ... ; 서른<설흔(←섞-은)>  
 b. 4 : 네층, 넷, 네, 네이, 녃, 나흘, ... ; 마흔<마슨(←맛-은)>

한편 남아메리카의 Abipón족은 3개의 수사만 사용하는데(Menninger, 1992, p. 7), 이런 언어들은 수사 3에서 4로 발달하는 과정이 한 동안 지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인간의 지각은 한 눈에 3개까지는 모두 인식할 수 있고 4개는 대부분이 인식할 수 있으나 그 이상에 대해서는 모호하다(Ifrah *et al.*, 2000, p. 7).<sup>21)</sup> 한국어에서 3의 수사 ‘세층’ <셋>과 4의 수사 ‘네층’ <넷>은 (15)와 같이 매우 유사한 형태로 사용되므로 ‘넷’이 ‘셋’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가정할 수도 있다(박교식, 2008, p. 107). 다만 30의 수사인 ‘서른’ <설흔>과 40의 수사 ‘마흔’ <마슨>의 관계에서 30의 ‘섞-’은 ‘셋’과의 관련되었을 수 있으나 40의 ‘맛-’은 ‘넷’과는 별개의 수사로 보인다.<sup>22)</sup>

수사는 일반적으로 형용사가 나타내는 속성과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나 (16)의 예와 같이 속성과 유사한 특징을 갖는다(Menninger, 1992, p. 8). 따라서 영어의 *a*, 독일어의 *ein*, 인도네시아어의 *se*와 같은 관사는 1의 수사에서 변한 것이며 형용사와 유사하게 명사를 한정하는 데 사용된다. 수사가 형용사처럼 사용되는 것은 수가 세는 대상에서 분리된 것을 나타내므로 수사열의 발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Menninger, 1992, p. 15).

20) ‘:석’, ‘:서·너’, ‘:세’, ‘:세층’ 등이 모두 [상성]으로 나타나는 것은 보상적 상성화로 보인다.

21) 인간이 순간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수리 능력을 *subitizing*(직산 또는 즉지)이라고 하며(박교식, 2008, p. 105), 보통 4에서 한계가 나타난다.

22) 이런 불일치는 ‘둘’(2)과 ‘스물’(20)에서도 발견되는데, 이는 별도의 어원에서 발달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고 보충법(suppletion)에 의해 대체된 것일 수도 있다.

(16) a. *two cows*b. *big cows*

원시 인도-유럽어, Sanskrit어, 그리스어, Celt어, 고대 Norse어 등은 수사 1부터 4까지에 대해서만 문법적 성이 있고 형용사와 같은 활용형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17)과 같이 러시아어에서 2~4는 단수 소유격으로, 5 이상은 복수 소유격으로 나타내는데, 4를 기준으로 차이가 있다(Menninger, 1992, p. 18). 한국어에서도 주로 (18a)의 1~4까지의 수관형사 형태인 ‘한, 두, 세, 네’가 형용사와 같은 용법을 가지고 있는데,<sup>23)</sup> 4를 경계로 나타나는 현상과 비슷하다.<sup>24)</sup> 이는 명사적 특성을 더 많이 지닌 수사가 이런 특성을 덜 지닌 수사보다 더 큰 수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는 점과도 일치한다.

- (17) a. *odin dom* ((문자적으로) ‘하나 집’)  
 b. *dva/tri/čtyř doma* ((문자적으로) ‘둘/셋/넷의 집’)  
 c. *pjatj/sto domov* ((문자적으로) ‘다섯/백의 집들’)

- (18) a.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b. 다섯 사람, <sup>?</sup>댓 사람, 여섯 사람, 일곱 사람, ...

또한 중세 한국어에서 ‘흐나ㅎ, 들ㅎ, 세ㅎ, 네ㅎ, 열ㅎ, 스물ㅎ’은 ㅎ-종성 체언이었는데, 여기에도 ‘넷’과 ‘다섯’ 사이에 단절이 나타난다. 이에 따라 한국어는 작은 수인 1~4에 대해서서만 명사적으로 쓰이는 형태와 형용사적으로 쓰이는 형태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 3.2. ‘손’을 기본으로 하는 수의 발달

개별 수사의 의미를 확실하게 설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적어도 처음 몇 개의 수사는 인간의 가장 오래된 언어 표현에 속하며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수사열은 5의 수사가 나타나면서 완성되는데, 5의 수사의 어원이 ‘손’과 관련된 경우가 많고 10의 수사는 ‘두 손’과 관련되므로 5를 통해 10의 수사까지 발달한 것이다. 따라서 5, 10, 20 등의 수사는 복합적인 구조보다는 단일이일 가능성이 높으나,<sup>25)</sup> 6~9의 수사는 복합적인 구

23) 한국어 관형사는 용언의 관형형이나 체언의 수식 용법이 굳어진 것이 많으므로(고영근·구분관, 2008, p. 124), 언어유형론적으로 명사성 형용사와 유사하다.

24) 수관형사로 3은 ‘서, 석’, 4는 ‘너, 낙’, 5는 ‘닷, 대, 댓’, 6은 ‘예, 옛’의 형태가 있으나 제한적으로 쓰인다. 다만 ‘댓’은 ‘댓밖에 안 먹은 ..’처럼 수사로도 쓰이므로 ‘다섯’의 준말로 파악되며, 『표준국어대사전』 사전도 수사와 수관형사로 처리하였다. 20은 다소 예외적인데, 구분관(2001, p. 270)은 ‘닷, 옛, 열두, 스무’도 수관형사로 보았다.

25) ‘다섯’을 제외한 ‘열중, 스물중’이 ㅎ-종성 체언이었음이 흥미로운데, 이는 다른 수사에 비해 10과 20의

생일 가능성이 있다(Heine, 1997, pp. 20-22).

(19)에서는 ‘손’을 나타내는 5를 바탕으로 구성된 복합적인 수사들의 예를 보여 주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여러 언어에서 자주 발견된다. 예를 들어 일본어에서 단위수에 붙는 접미사 *tsu*는 *tu*나 *te*(‘손’)와 관련될 수 있는데, 이는 두 손으로 셈하는 초기의 관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의 수사 (*i*)*tsu*에서도 ‘손’이라는 뜻을 볼 수 있다. 한편 Ainu어는 6~9가 뺄셈에 기초해 만들어졌는데, 6은 *i-wan*(4-10), 7은 *ar-wan*(3-10), 8은 *tu-pesan*(2-아래), 9는 *shine-pesan*(1-아래)이다(Stampe, 1976, p. 602). 이는 1~5까지와 10의 수사가 만들어진 다음에 6~9의 수사가 만들어졌음을 보여 준다.

(19) a. (Mamvu어)6 : *eli gode reli* (‘손이 하나를 잡다’)

b. (Api어) 5 : *luna* (‘손’), 10 : *lua luna* (‘손 손=두 손’)

이와 관련하여 한국어 수사 ‘다섯’(5)의 어근을 *té*로 보고 일본어 *te*(‘손’)과 연결시키거나(Aston, 1879, p. 358), 그 어원을 ‘다(전체)/달+손’ <다섯>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Ramstedt, 1949, p. 77). 하지만 ‘다섯’의 구성은 ‘다.섯’보다 ‘닷.읏’으로 분석되므로 동의하기 어렵다(김성규, 1984, p. 420). 마찬가지로 10의 수사 ‘열’을 ‘여러’와 같은 어근으로 보기도 하고(Aston, 1879, p. 359), ‘열(다)(開)에서 기원한 것으로 가정하기도 하는데, 이는 만주어 10의 수사 *žuan*이 *žuan*-(‘열다’)에서 기원하였고, 몽골어 10의 수사 *arban*도 *arba-lžal*(‘쪽 꺾이다, 위쪽으로 잡아당기다’)와 관련된 것과 유사하기 때문이다(Ramstedt, 1949, p. 77). 하지만 손으로 수를 세는 방식에 있어 한국과 몽골이 차이가 있으며(김승곤, 1984, p. 255), 한국어에서 손을 ‘닫다’, ‘열다’라고 하지 않고 손을 ‘꿍다’, ‘펴다’라고 하므로 어원으로 보는 데 의문이 남는다(박교식, 2008, p. 108).<sup>26)</sup>

또한 ‘여섯(6)’을 ‘열-(開)+손’으로 분석하고, ‘일곱(7)’도 ‘*ilan*(만주어 3)+꿍(힌)’이나 ‘열+\**gu*(3)+없-’으로 재구하며, ‘여덟(8)’도 ‘열-(開)+둘+없는’ 또는 ‘둘을 빼고 열다’로 보거나 ‘열+둘+없-’으로 분석하고, ‘아홉(9)’은 ‘a(‘작은 것’)+꿍(힌)’이나 ‘열+\*하(1)+없-’으로 재구하기도 하였다(Ramstedt, 1949, pp. 77, 167; Miller, 1969, p. 29). 하지만 이 재구형들은 검증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재고의 여지가 있다.

다만 한국어의 ‘다섯’과 ‘여섯’은 동일한 조어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sup>27)</sup> 마찬가지로 7~9에서 반복되는 ‘-ㅅ’도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시사한다(박교식, 2008, p. 110). 따라서 한국어 수사의 발달에서 5~6과 7~9 사이에 단절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수사가 먼저 만들어졌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26) ‘꿍다’의 중세 한국어 형태인 ‘꿍다’는 “**曲은 교힐** 씨라(석보상절 1:48)”처럼 ‘꿍다’의 뜻이었는데, ‘손을 구부린다’는 뜻에서 “**손굽아** 헤여본이(해동가요)”와 같은 형태로 쓰였다.

27) ‘세충, 네충’이 ‘셋, 넷’으로 변한 것은 ‘다섯, 여섯’에 의한 유추적 평준화이다(구본관, 2001, p. 278).

## 4. 수사 체계의 유형론

### 4.1. 기본수의 유형

수사와 분류사에 대한 범언어적인 연구는 수사 체계에 대해 일반화가 가능함을 보여 주며(Greenberg, 1978, p. 251), 이는 수를 표현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전략이 있음을 가정하게 한다(Heine, 1997, p. 18). 수사 체계를 형성하는 인지적 원리로 크게 3가지가 제시되었는데, 첫째는 기본수가 없이 각 수사가 독립적인 용어로 표시되는 방법이며, 둘째는 작은 수가 큰 수를 표현하기 위해 산술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고, 셋째는 신체 부위 특히 손가락과 발가락의 수와 관련된 개념에 기초한 방법이다(Schmidt, 1926, p. 357). 이와 같은 원리들이 결합하여 확대되므로 수사는 자의적이지 않으며 동기화된 체계이다(Heine, 1997, p. 19).

수사 체계에 대한 첫 번째 일반화로 Greenberg(1978, p. 253)은 모든 언어가 한정된 범위의 수사 체계를 갖는다고 제안하였지만, 경우에 따라 특별한 수사를 갖지 않는 언어도 존재한다. 비록 인간이 추상적인 사고를 통해 수를 세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반드시 수사라는 언어 형태로 표현되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즉 모든 인류는 수 개념을 다룰 수 있으며, 특별한 언어적 형태로 표시되는 수사가 없어도 수를 셀 수 있다. 예를 들어 파라과이의 Lengua어나 파푸아뉴기니의 Kobon어는 신체 부위를 가리키는 표현(body counting)으로 수를 표현한다(Comrie, 2005, p. 530).<sup>28)</sup> 수를 표현하기 위해 대상과 추상적인 자질을 갖는 모형을 일대일로 대응시켜 표시하는데, 수를 구분하기 위해 신체 부위뿐 아니라 수의 자리를 지정하는 몸짓이 추가적인 신호로 사용되기도 한다(Ifrac *et al.*, 2000, p. 14). 이와 같은 사례는 수를 활용하는 능력과 이를 표현하는 언어(수사)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개념화를 통해 상징적으로 연결되는 기호라는 사실을 예시해 준다.

한편 2~3으로 제한된 수사로만 표현하는 언어들이 있는데, (11)의 예처럼 2를 기본수로 하기도 하고, 고대 Sumer어도 수사 3개를 기초한 흔적이 있으며, 호주 북부의 Mangarrayi어도 3개의 수사를 사용한다. 또한 5의 수사를 기본으로 하는 체계도 있는데, 5진법 체계는 사람의 손이 수사 체계를 구조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모형으로 작용하여 손과 관련된 단어를 만든다(Haarmann, 2008, pp. 37-38). 예를 들어 10은 '두 손'을, 20은 '손과 발(한 사람 전체)'에서 파생된 체계가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수사 10이 5보다 더 현저한 기본수이며, 10을 기본수로 하는 언어가 가장 많다(Heine, 1997, p. 22). 대부분 1단위 수사와 10단위 수사는 어근의 유사성이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 영어에서 2는 *two*이고 20은 *twenty*이다.

그런데 (20)과 같이 중세 한국어에서 30~90의 수사에서 10배수 접미 형태로 '은/은'를 확인할 수 있으며(김성규, 1984, p. 423), 그 의미도 10이 확실하다(조규태, 2006, p. 91). 또

28) Kobon어는 신체 부위를 이용한 수사와 3이하의 제한된 수사 체계를 갖는다.

한 10배수에 사용된 ‘은/은’을 고대 투르크어(돌궐어) *on*(10)의 차용으로 보기도 하지만(조규태, 2006, p. 110), 20을 제외한 10배수에서 체계적으로 사용되므로 차용이나 우연이 아니라 알타이 공통 조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최학근, 1964, pp. 585-586; 김방한, 1983, p. 199; 이등룡, 2001, p. 54).<sup>29)</sup> 일반적으로 수사의 조합에서 큰 수가 작은 수 앞에 오며, 이는 구정보가 신정보보다 앞에 오는 원리와 유사한데(Stampe, 1976, p.603), 한국어의 10배수 수사는 이와 같은 원리를 따라 10진법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30)</sup>

한편 한국어는 (21a, a')과 같이 2~5:20~50은 어근이 유사하지 않지만 6~9:60~90은 동일 어근인데, 터키어에서도 (21b, b')과 같이 비슷하게 나타난다(송기중, 2004, p. 128).<sup>31)</sup> 수사 체계가 기원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언어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sup>32)</sup>

(20) (\*섯+\*은>)섯흔, (\*맛+\*은>)마순, (\*쉬+\*은>)션, (\*여쉬+\*은>)여션, (\*냥+\*은>)닐흔,  
(\*열+\*은>)여든, (\*양+\*은>)아흔

(21) a.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a'. 열, 스물, 서른, 마흔, 쉰; 예순, 일흔, 여든, 아흔, 온  
b. *bir, iki, üç, dört, beş; altı, yedi, sekiz, dokuz,* (터키어)  
b'. *on, yirmi, otuz, kırk, elli; altmış, yetmiş, seksen, doksan, yüz*

10진법에 기초한 체계 이외에도 드문 편이기는 하지만 Ainu어와 같이 20진법을 사용하는 언어도 있는데, 프랑스어에도 20진법의 흔적이 있다(Haarmann, 2008, p. 40). 그런데 중세 한국어에서 ‘스물흔’이 1~4와 10의 수사와 함께 ‘흔’ 종성 체언이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이를 오래된 수사의 형태로 본다면 ‘스물흔’은 ‘열흔’과 함께 발달하였는데, 이는 손과 발을 함께 사용하는 수사 체계(20진법)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1a~b)의 한국어에서 ‘셋’과 ‘서른’, ‘다섯’과 ‘쉰’ 사이에 일부 유사한 어근이 확인되지만 ‘마흔’은 ‘넷’과 완전히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송기중, 2004, p. 123). 이는 ‘마흔’이 ‘넷’과는 별개로 발달한 수사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또한 20의 배수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20진법의 흔적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sup>33)</sup>

29) 20에서 예외가 생기는 현상은 라틴어 수사 *viginti*(20)의 경우와 유사하다.

30) 다만 20은 ‘은/은’을 취하지 않으며, 40(‘마순’)의 어근은 4(‘네흔’)와 다르다.

31) 만주어 수사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보이지만, 몽골어는 2~9:20~90에서 규칙적으로 어근이 대응한다.

32) 하지만 터키어에 분류사가 2가지밖에 없는 것은 남방계 언어에서 분류사가 발달한 것과 상반된 특성으로, 한국어에 여러 기층이 있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김방한, 1983, p. 32; 박진호, 2015, p. 11).

33) 남한강변에서 발견된 대략 3만 8천 년 전의 눈금돌에는 21개의 눈금이 일정한 간격으로 새겨져 있으므로 이를 ‘길이의 표준 척도’로 보기도 하는데(신용하, 2017, pp. 65-66), 여기에서도 20진법을 사용했을 가



## 4.2. 이중적인 수사 체계

언어 접촉으로 2가지 이상의 수사 계열을 사용하는 언어도 있는데, 한국어와 같이 이중적인 수사 체계를 사용하는 언어는 드문 편이며, 한국어와 일본어가 대표적이다. 한국어는 고유어 수사도 활발하게 사용되는 반면, 일본어는 고유어 수사가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어에서는 맥락에 따라 (22)의 고유어 수사와 (23)의 한자어 수사 중 하나가 선택되어 사용되는데, 이는 상호 보완적인 이중 수사 체계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일본어는 경쟁하는 이중 수사 체계로 볼 수 있는데, 권위가 낮은 고유어 수사가 지배적 수사에 밀려 사용 빈도와 사회적 기능이 줄어들었다. 이로 말미암아 1~13까지의 일본어 고유어 수사는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한국어는 고유어 수사가 99까지 남아 있고 쓰이는 영역이 구분되어 있어 활발하게 사용된다.

- (22) a.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스물, 서른, 마흔, 쉰, 예순, 일흔, 여든, 아흔, 온, 즈믄, ...  
a'. 한, 두, 세, 석, 네, 닢, 스무, 한두, 두세, 서너, 대여섯, 예닐곱, ...  
b.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
- (23) a. 영,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구, 십,  
이십, 삼십, 사십, 오십, 육십, 칠십, 팔십, 구십, 백, 천, 만, ...  
b. 제일, 제이, 제삼, 제사, 제오, ...
- (24) a. 한 시, 한 명, 한 마리, 한 그루, 한 살, ...  
b. 일 분, 일 초, 일 세, 일 킬로미터, ...  
b'. 이십사 시, 이십 명, 삼십 마리, 오십 그루, 백 살, ...

한국어의 고유어 수사와 한자어 수사는 (24a, b)와 같이 일정한 대상을 구분하여 서로 다른 사용 영역에 상보적으로 분포한다. 다만 (24b')는 원래 (24a)처럼 고유어 수사가 쓰여야 하지만 큰 수에 대해서는 한자어 수사가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양상도 보이고 있다.<sup>34)</sup>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중국어 수사가 차용된 것은 한자가 매우 이른 시기부터 사용되었기 때문이며 문자로 표기된 숫자를 읽기 위한 방법으로 한자어계 수사가 차용된 것이다.<sup>35)</sup>

능성이 엇보인다.

34) 현대 한국어에서 대략 20이상의 큰 수는 고유어 수사보다 한자어 수사가 더 많이 사용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예. 스무 명 → 이십 명)

35) 유럽 언어에서는 수사 전체가 차용되지는 않았으나 일부 수사가 차용된 예로 핀란드어의 *sata*(100)나 Lithuania어의 *tukstantis*(1000)가 있다.

## 5.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 수사는 언어유형론적으로 분류사가 발달한 언어이며 이는 수를 개념화하는 과정에서 대상을 범주화하고 그 속성을 완전히 추상화하지 못한 원시적인 특성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수사와 분류사가 함께 표시되는 형태가 수사만으로 대상의 수를 나타내는 형태보다 오래된 형태로 파악되며, 이는 여러 언어의 통시적 자료에서 근거를 얻을 수 있었다. 한국어 수사열의 발달은 그 기원을 알기 어렵지만 ‘하나:둘’과 ‘웃뜸:벽움’의 존재는 수사 2와 3 사이에 단절이 있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셋’이 ‘쌍(다), 많(다)’의 의미와 관련된 것도 범언어적으로 3의 수사가 발달할 때 나타나는 현상과 유사하다. 이뿐 아니라 1~4의 수사에 대해서만 명사적 용법과 형용사적 용법을 갖는 별도의 형태가 발달한 것도 여러 언어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다만 다섯 이후의 수사가 ‘손’과 관련된 어원을 갖는 언어가 많으나 한국어 수사는 이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할 것이 요구된다. 한국어는 \*은/은으로 재구되는 10의 수사를 기본수로 하는 10진법을 사용하는데 2~5와 20~50까지의 수사는 어근이 동일하지 않은 특성을 보이며, 이런 현상도 터키어, 만주어 등의 일부 언어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스물’과 ‘마흔’은 20진법의 흔적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한국어는 고유어 수사와 한자어 수사가 이중적으로 사용되는데, 그 사용 영역이 구분되어 상호 보완적인 수사 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본고는 언어유형론의 관점에서 공시적 비교와 통시적 검토를 통해 한국어 수사 체계의 특성을 정리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를 좀 더 정교화할 부분이 적지 않으므로 이는 후속 연구를 기약하며 남겨 놓는다.

## 참고문헌

- 고명균. (2007). 17세기 국어 수량 의존명사에 관한 연구. 남성우 외(편). *국어사 연구와 자료* (pp. 103-134). 서울: 태학사.
- 고영근·구분관. (2008). *우리말 문법론*. 파주: 집문당.
- 구분관. (2001). 수사와 수관형사의 형태론. *형태론*, 3(2), 265-284.
- 김방한. (1983). *한국어의 계통*. 서울: 민음사.
- 김성규. (1984). 국어 수사체계의 일고찰. *관악어문연구*, 4, 419-432.
- 김승곤. (1984). *한국어의 기원*.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 민현식. (1998). 의존명사. 서태룡 외(편). *문법 연구와 자료* (pp. 165-198). 서울: 태학사.
- 박교식. (2008). 한국어 수사의 어원에 관한 수학적 조망: 하나에서 열까지. *한국수학사학회지*, 21(3), 97-112.

- 박정구. (2012).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중국어 분류사의 발전 및 그와 한국어의 관련성. *국어학*, 63, 391-412.
- 박진호. (2015). 언어유형론이 한국어 문법 연구에 제시하는 것들. *일어일문학연구*, 94(1), 3-27.
- 송기중. (2004). *역사비교언어학과 국어계통론*. 서울: 집문당.
- 신용태. (1988). *원시 한일어의 연구*.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 신용하. (2017). *한국민족의 기원과 형성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이등룡. (2001). 한국어의 친족어를 찾기 위한 연구-10의 수사 \*on을 근거로-. *인문과학*, 31, 49-64.
- 이승재. (2011). 미륵사지 목간에서 찾은 고대어 수사. *국어학*, 62, 3-46.
- 이익섭. (1973). 국어 수량사구의 통사 기능에 대하여. *어학연구*, 9(1), 46-63.
- 정제한. (1998). 단위명사. 서태룡 외(편). *문법 연구와 자료* (pp. 199-226). 서울: 태학사.
- 조규태. (2006). 한국어 수사의 어원과 어형 변화에 대하여. *어문학*, 94, 81-117.
- 조미희. (2015). '변역노절대'의 수량사구 구성 연구. *우리말연구*, 42, 129-166.
- 채 완. (1982). 국어 수량사구의 통시적 고찰. *진단학보*, 53, 155-170.
- 채 완. (1983). 국어 수사 및 수량사구의 유형적 고찰. *어학연구*, 19(1), 19-34.
- 최학근. (1964). 국어 수사와 Altai어족 수사와의 어느 공통점에 대하여. *도남 조운제 박사 회갑 기념 논문집* (pp. 569-599).
- Aikhenvald, A. Y. (2000). *Classifiers: A typology of noun categorization devices: A typology of noun categorization devic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Aston, W. G. (1879). A comparative study of the Japanese and Korean languages.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New Series)*, 11(3), 317-364.
- Comrie, B. (2005). Numeral bases. In M. Haspelmath (Ed.). *The world atlas of language structures* (pp. 530-533).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e Heinzelin, J. (1962). *Ishango*. *Scientific American*, 206, 105-116.
- Greenberg, J. H. (1975). Dynamic aspects of word order in the numeral classifier. In C. N. Li (Ed.). *Word Order and Word Order Change* (pp. 27-45).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Greenberg, J. H. (1978). Generalizations about numeral systems. *Universals of human language*, 3, 249-295.
- Haarmann, H. (2008). *Weltgeschichte der Zahlen*. München: Verlag CH Beck. 전 대호 역. (2013). *숫자의 문화사*. 파주: 문학동네.
- Heine, B. (1997). *Cognitive Foundations of Grammar*. Oxford University Press.
- 이성하·구현정 역. (2004). *문법의 인지적 기초*. 서울: 박이정.

- Henshilwood, C. S., d'Errico, F., Yates, R., Jacobs, Z., Tribolo, C., Duller, G. A., & Wintle, A. G. (2002). Emergence of modern human behavior: Middle Stone Age engravings from South Africa. *Science*, 295(5558), 1278-1280.
- Ifrah, G., Harding, E. F., Bellos, D., & Wood, S. (2000). *The universal history of computing: From the abacus to quantum computing*. New York: John Wiley.
- Jones, W. (1824). *Discourses delivered before the Asiatic Society: and miscellaneous papers, on the religion, poetry, literature, etc., of the nations of India*, London: CS Arnold.
- Lehmann, W. P. (2013). *Historical linguistics: an introduction*. London: Routledge.
- Menninger, K. (1992). *Number Words and Number Symbols: A Cultural History of Numbers*. New York : Dover Publications. 김량국 역. (2005). *수의 문화사*. 서울: 열린책들.
- Miller, R. A. (1969). The Altaic numerals and Japanese. *The Journal-News letter of the Association of Teachers of Japanese*, 6(2), 14-29.
- Ramstedt, G. J. (1949), *Studies in Korean Etymology*. Helsingfors: Suomalais-Ugrilainen Seura.
- Ramstedt, G. J. (1952). *Einführung in die altaische Sprachwissenschaft. II. Formenlehre. Bearbeitet und herausgegeben*. Helsingfors: Suomalais-Ugrilainen Seura. 김동소 역. (1985). *알타이어 형태론 개설*. 서울: 민음사.
- Schmidt, W. (1926). *Die Sprachfamilien und Sprachenkreise der Erde : Atlas von 14 Karten*. Heidelberg : Winter.
- Stampe, D. (1976). Cardinal number systems. In *Papers from the Regional Meeting Chicago Linguistic Society*, 12, 596-609.

#### 정해권

02450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전공

전화: (02)2173-2419

이메일: haegwon@hufs.ac.kr

Received on December 31, 2016

Revised version received on March 22, 2017

Accepted on March 31, 2017